

# 최형우 영입 KIA, 보상선수는 누구?



최형우

## KIA, FA 보상 Q & A

보상선수 지명은 언제 이뤄지나? 계약금은 일시불로 지급될까? '대어' 최형우 영입과 관련한 KIA 타이거즈의 FA 공금 증을 풀어본다.

KIA는 지난 24일 2016 '타격 3관왕' 최형우와 계약금 40억원, 연봉 15억원 등 총 100억원에 4년 계약을 맺었다. 소문 무성했던 최형우의 KIA행이 '사실'이 되면서 다음 관심사는 'FA 보상 절차'에 쏠린다.

최형우의 원소속 구단인 삼성은 '해당 FA 연봉의 300%' 또는 '보호 선수 20인의 1명+해당 FA 연봉의 200%'라는 두 가지 보상 규정을 놓고 선택을 하게 된다. 삼성이 전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KIA가 최형우의 올 시즌 연봉 7억원의 300%인 2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FA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삼성이 보상 선수를 원하면 KIA는 14억원의 보상금과 함께 20인 외 선수 한 명을 삼성에 내어줘야 한다. 대부분이 후자를 선택하는 만큼 KIA는 보호 선수 20인 명단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보상선수는 빠르면 오는 2일 늦어도 4일에는 확정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공시와 함께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FA 선수를 영입한 팀이 계약서를 KBO로 보내 승인을 받아야 이적이 확정된다. KBO에서 이를 공시

하면 FA를 영입한 팀이 3일 이내에 보호 선수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명단을 받은 FA 원소속구단은 3일 이내에 보상 선수 선택 여부를 결정한다.

**최형우 연봉 7억원의 300%  
삼성 FA 보상선수 원할 때  
14억 보상금+1명**

**양현종도 보호선수 포함?  
나지완 등 FA 자격은 제외**

**계약금 40억 일시불로 받나?  
올해·2년 후 2회 분할지급**

KIA는 지난 주말 KBO에 공문을 보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8일 최형우의 이적이 공시된다. 그렇게 되면 KIA는 12월 1일까지 보호선수 명단을 짜 삼성에 보내고, 이를 받은 삼성은 4일까지는 답을 줘야 한다.

사이드암 손영민도 보상 선수 대상이 되는지도 팬들의 또 다른 궁금증. 답은 '손영

민의 이적도 가능하다'이다. 유주 운전 사고로 팀을 떠나야 했던 손영민은 지난 4월 임의탈퇴 해제를 위해서는 규정상 해당 선수를 정식 선수로 등록해야 한다.

FA 계약을 통해 KIA에 잔류한 나지완은 올 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얻은 터라 보호 선수와 상관없다. 20인 명단에 넣지 않아도 된다. 행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또 다른 FA 양현종도 마찬가지다.

'군보류' 선수의 상황은 군복무 시점과 엔트리 등록 여부에 따라 다르다. 올 시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나 군복무 중인 선수는 보호선수 명단에 넣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안치홍과 김선빈은 지난 가을 군 제대 후 엔트리에 등록이 됐던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0인에 묶어야 한다. 상무나 경찰청에 합격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선수는 지명 대상이다.

지난 9월 상무에서 제대한 뒤 엔트리에 등록되지 않았던 임기영은 자동보호된다. 임기영은 상무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14년 송은범의 FA 보상선수로 KIA의 지명을 받은 케이스이기도 하다.

계약금 40억원이라는 대박을 터트린 최형우. 계약금은 규정에 따라 2회 분할 지급된다. 최형우는 KIA로부터 20억원을 먼저 받게 되고 2년 뒤 남은 20억원을 가져가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필 대신 팻

**KIA 좌완 팻 던 영입  
ML 출신...제구력 뛰어나  
필·지크 보호선수 제외**

브렛 필, 지크 스프루일과 작별을 선택한 KIA 타이거즈가 좌완 팻 던(사진)을 영입했다.

KIA 타이거즈가 2017시즌 활약할 새 외국인 선수로 투수 팻 던(Pat Dorn·좌투좌타·28)을 선택, 총액 9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앞서 KIA는 25일 KBO에 제출한 보류선수 명단에서 필과 지크의 이름을 빼면서 새로운 외국인 선수 영입을 공식화했다.

미국 출신인 좌완 팻 던은 186cm 키에 체중 88kg의 체격을 지니고 있으며, 메

이저리그에서 1시즌을 뛰었고 마이너리그에서 7시즌 동안 활약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19경기에 출장해 6.31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6패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7시즌 동안 154경기에 나서 51승 57패, 평균자책점 4.12를 찍었다.

올 시즌 미네소타 트윈스 산하 트리플 A팀인 로체스터 레드윙스 소속으로 뛴 팻 던은 지난 5월에는 메이저리그로 승격돼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기도 했다.

팻 던은 140km 초·중반대의 직구를 바탕으로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한다. 제구력이 뛰어난 팻 던은 특히 투구 밸런스와 변화구 각이 좋다는 평가다. 기복이 적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편 팻 던은 29일 메디컬 체크를 받을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7일 부산 동래베네트스골프장에서 열린 ING 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골프 대회에서 LPGA투어 한국 선수들이 우승했다. 김효주의 버디퍼트가 들어가자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LPGA 팀은 이날 부산 동래베네트스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1대1 매치 플레이 12경기에서 8승4패로 앞서 최종 승점 13-11로 이겼다.

<KLPGA 제공>

## 해외파 역전 우승...싱글매치 8승 4패

**박인비 골프 LPGA-KLPGA 대항전 12-10 따돌려**

역시 세계 최고의 무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뛰는 선수들의 기량이 한발 앞섰다.

LPGA투어 한국 선수들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선수들과 팀 대항전 ING 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골프 대회 최종일에 역전극을 펼친 끝에 2년 연속 우승했다.

LPGA 팀은 27일 부산 동래베네트스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1대1 매치 플레이에서 우승에 필요한 승점 12.5 점을 먼저 채웠다.

전날까지 포볼, 포션 경기에서 5승7패로 뒤졌던 LPGA 팀은 이날 기대대로 상

해립이 백규정의 돌풍을 3홀차로 잡재웠다. 하지만 후반에 승부를 걸었다는 LPGA 팀은 이미향, 최운정, 지은희, 김세영이 줄줄이 승리를 거두 승점 12-10으로 역전했다.

첫날과 둘째날 포볼과 포션 경기에서 모두 졌던 LPGA 팀 주장 지은희는 8번 홀(파3)에서 상대 배선우에 홀인원을 얻어맞았지만 끝까지 따라붙어 귀중한 승점을 팀에 안겼다.

남은 2경기에서 한 경기만 비겨도 우승하는 LPGA 팀은 10번째 주자 김효주가 이승현을 상대로 17번 홀까지 1홀 차로 앞서며 승점 0.5점을 확보해 우승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한국, 월드컵 골프 22위**

덴마크가 월드컵 골프대회 정상에 올랐다.

쇠렌 키엘센과 토르비외른 올레센이 한 조로 나선 덴마크는 26일 호주 멜버른의 킹스던 히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제 58회 ISPS 한타 월드컵 골프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의 성적을 낸 덴마크는 공동 2위인 중국, 미국, 프랑스를 4타 차로 제치고 이 대회에서 처음 우승했다.

28개 나라가 2인 1조로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김경태(신한금융그룹)와 안병훈(CJ)이 출전한 우리나라는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로 웨일스, 말레이시아, 인도와 함께 공동 22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2002년 최경주와 허석호가 출전해 공동 3위에 오른 것이 월드컵 골프 역대 최고 성적이다.

/연합뉴스



## 김하늘 JLPGA 최종전 우승

**이보미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

김하늘(하이트진로)이 일본여자프로골프 2016시즌 최종전에서 우승했다.

김하늘은 27일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 컨트리클럽(파72·6448야드)에서 열린 JLPGA 투어 리코컵 투어챔피언십(총상금 1억원)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보미와 72타를 쳤다.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의 성적을 낸 김하늘은 나리타 미즈즈(일본)를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사진>

지난해 JLPGA 투어에 진출한 김하늘은 2015시즌 9월 만상웨어 레이디스 토카이 클래식에서 첫 우승을 달성했고 올해 3월 약사 레이디스 토너먼트에 이어 투어 통산 3승째를 거뒀다. J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첫 우승을 한 김하늘은 상금 2500만엔(약 2억6000만원)

을 받았다. 신지애가 6언더파 282타로 단독 3위, 이지희는 4언더파 284타로 공동 4위에 각각 올랐다.

이보미는 JLPGA 투어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 수상을 확정했다. 이보미는 최종합계 2언더파 286타로 공동 9위에 올라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의 선수상 대상 포인트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보미는 올해 상금, 평균 타수, 올해의 선수 부문 등 3관왕에 올랐다.

2012년 제정된 J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은 첫 전미정, 2014년 안선주, 지난해와 올해 이보미가 수상하는 등 2013년(요코미네 사쿠라)을 제외하고는 한국 선수 차지가 됐다.

/연합뉴스

## 日 투수 오타니 "시속 170km 공 던지겠다"

일본이 자랑하는 괴물 투수 오타니 쇼헤이(22·닛폰햄 파이터스)가 "시속 170km 공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오타니는 26일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닛폰햄 프리미엄 토크쇼에 나섰다. 10월 16일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클라이맥스 파이널스테이지 5차전에서 시속 165km의 공을 던지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흘러나왔고 사회자는 오타니에게 "구속에 대한 목표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다.

오타니는 "그날 일본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올해 세계 최고 속도에는 시속 4

km 정도 부족하다"며 "시속 170km 공도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 성공하면 나도 놀랄 것 같다"고 답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최고 구속은 아롤디스 체프먼이 뉴욕 양키스 소속으로 7월 19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 던진 시속 169km(105마일)이다. 일단 오타니는 체프먼의 올해 기록을 넘어서는 걸 목표로 삼았다. 체프먼은 신시내티 레즈에서 활약하던 2011년 4월 1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시속 172km(107마일)의 광속구를 던지기도 했다.

/연합뉴스